광주 빛그린산단 인지도 낮고 업체들 외면

전남대 박해광 교수팀, 차 부품기업 169곳 실태조사

"입주 의사 없다" 80%… 주거래업체 갑질 어려움도

광주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빛그린국가산단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인지도가 낮고 입주 의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그린산단은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로 야심차게 준비해온 곳이지만 정작 지역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지역 업체 중 대부분이 주거래 업체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하는 등 업체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남대 박해광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의뢰를 받아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9%가 빛그린산단에 입주(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전체 면적 407만㎡로 광산구와 함평 일대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단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은 빛그린산단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물류비용 과다(28건) ▲다른 곳으로 이전(21건) ▲이전비용 부담(20건) ▲자가부지 사용(15건)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절반 이상 업체(53.3%)가 빛그린산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입주 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68%가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지원을 들었으며 부품기업 집적화, 완성차 공장 입주 등은 14.1%와 10.6%였다.

또 최근 3년간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중 절반 이상 기업이 납품대금 결제지연(54.9%), 부당 발주 취소(51.3%)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무·인력자료 등 영업상 비밀 요구(49.6%),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43.9%) 등도 절반에 달했다.

박 교수팀은 "입주 의사가 낮고 납품처와 원청업체와의 접근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완성차 업체와 부품기업 입주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201곳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169곳이 응했다. 평균 종업원 수는 23.7명, 연매출은 85억원, 평균연봉은 3016만원, 초임 연봉은 2513만원이다. 주당 평균 기본 근로시간은 40.9시간, 연장 근로시간은 13.2시간으로 조사됐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초보 엄마들이 만드는 '아이 건강 밥상' 5일 광주 북구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우리 아이 건강 밥상 만들기 체험'에 참가한 초보 엄마들이 강사와 함께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영양 만점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기관 납부 지방세,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김동찬 광주시의원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 협약 불구 겉돌아"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으로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 유치 당시인 2006년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이 합의했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민주·북구5)은 5일 열린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2006년 협약서를 통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이들 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연간 200억원을 넘는다"면서 "하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기금조성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8년 10월 기준 283억원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지방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세 지자체가 약속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1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 성과 내용을 담은 공동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이 급선무로 보고 이를 추진 중이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소극적이다.

광주시가 기금 운영방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조성, 기금 활용처 등 조례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 올해 4월 전남도에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반면 나주시는 "해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비 등으로 150억원 이상 들어간다"며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나 기금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동혁신도시 유치 당시 혁신도시 입지를 행정구역상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될 때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요소로 감안했다"며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광주·전남 상생에 기여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올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생 전학·편입학 업무 투명성 강화한다

전남도의회 전국 첫 조례 제정

학교장 재량권에만 맡겨진 학생 전학과 편·입학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곽영체 의원(국민의당·강진1)이 대표 발의한 '전남 학생 전학, 편·입학 사무처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학 등 허가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줬다.

그러나 허가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은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학생 정원과 결원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곽영체 의원은 "전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의견 청취 등을 조례에 규정해 학교장의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조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도우미를 배치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남도의회는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을 신설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교통약자 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서비스 '광역이동지원센터' 1개소와 저상버스 89대, 장애인 콜택시 116대를 운영 중이다.

송형곤 의원은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통약자가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원도시 순천, 'IT 미래정원' 모델 제시

정원산업디자인전 15억 확보

정원도시 순천시가 IT 기반 미래정원의 모델을 제시한다.

전남도는 산림청의 '2018년 정원산업디자인전' 공모에서 순천시 'IT 기반 미래정원 모델'이 선정돼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원산업디자인전은 정원을 산업과 연계한 제품의 개발·전시·판매를 통해 4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성된 정원은 도시재생 기반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순천시는 생태와 기술을 융합해 IT 기반의 미래정원 모델을 시연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정원 트렌드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정원은 사물인터넷(IoT) 신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정원으로 조성되며, 특히 미래정원의 모습과 다양한 디자인의 정원용품을 소개하는 '정원과 4차 산업혁명 디자인 공모전', 정원 관련 VR·AR체험관, 미래정원 산업전시·판매관 등이 운영된다.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숲정원(Forest Garden) 컨퍼런스'도 열 계획이다. 또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가시나무 등 난대수종 4300만 그루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철쭉 3400만 그루 재배지 등을 대상으로 정원수·화훼 농장 투어, 비즈니스데이, 꽃과 나무시장 등을 운영해 지역 조경·화훼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해외작가 정원 조성, 도시 재생을 위한 테마형 마을정원 조성도 추진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IT와 정원이 만나는 미래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잠재력 있는 정원소재 식물산업의 시장을 개척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